

세상을 바꾸는 혁신 인재 지원사업 취지

서울공대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이끌어온 리더들을 배출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키우고자 합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던지는 사람. 주어진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풀어야 할 질문을 만드는 사람. 그런 리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정의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능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서 세계를 선도해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미래를 만드는 일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탁월한 문제, 도전적인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비전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민하는 난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공학적 도전에 뛰어들겠다는 탐구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물건과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는 꿈. 새로운 비즈니스로 세계를 바꾸는 기업을 세우겠다는 희망.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찾는 문제입니다.

좋은 답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제기하는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붙잡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끝내 현실에서 작동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공학인의 정신입니다.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현실로, 실험실을 넘어 세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정신. 바로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런 공학인을 키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만드나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공학인의 정신을 가지고 꼭 해내고 싶은 도전이 있으신가요. 그 도전적인 문제를 던져보세요.

걱정말고 도전해보세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여러분의 탐색과 도전의 과정을 3년간 함께 하겠습니다.

혁신 인재 지원사업 제안서 작성 가이드

1. 제안서의 의미

이 제안서는 여러분의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여러분의 의지와 문제의식을 보고자 합니다. 완벽한 해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질문을 기다립니다.

2. 제출 형식

- 분량: A4 2장 이내
- 블라인드 제출: 이름, 학번, 학과, 성적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체 기재하지 마십시오
- 형식: 자유 형식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도 좋습니다)

3. 제안서에 답아야 할 내용

3-1. 도전적 질문 (한 문장 요약) 여러분이 던지고자 하는 질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주세요.

- 예: "도시의 아파트와 사무용빌딩이 미세먼지를 스스로 흡수할 수 있을까?"
- 예: "거짓말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 예: "물이 아니라 공기흐름을 제어해서 산불을 끌 수 있을까?"

3-2. 왜 이 질문인가 (질문의 배경과 중요성)

-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요?
- 왜 지금 이 질문을 던져야 하나요?
-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3. 공학적 도전 과제

- 이 질문을 풀기 위해 공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요?
- 현재 기술이나 접근법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 어떤 공학적 돌파가 필요할까요?

3-4. 세상이 바뀌는 모습 (임팩트)

- 이 질문이 해결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누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3-5. 현재의 탐색 (선택사항)

- 이미 조사하거나 시도해본 것이 있나요?
- 어떤 것을 배우거나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 어떤 협력이나 자원이 필요할까요?

4. 평가 관점

제안서는 다음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 질문의 탁월성: 이 질문이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 공학적 접근 가능성: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가
- 사회적 임팩트: 해결되었을 때 세상에 미칠 영향

평가하지 않는 것:

- 해법의 완성도나 기술적 디테일
- 문장의 화려함이나 형식적 완성도
- 선행 연구나 시장 조사의 깊이

5. 작성 시 유의사항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1학년 여러분에게 완벽한 해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거칠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의식과 의지입니다.

진솔하게 쓰세요: 꾸미거나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밤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 꼭 풀어보고 싶은 질문을 솔직하게 담아주세요.

과정이 곧 성과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3년간의 탐색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통찰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성과입니다.

6. 마지막 당부

여러분의 제안서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받겠습니다.